Kang Kyung Koo

강경구 작가는 학고재 본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적인 지필묵 대신 아크릴 물감으로 두텁고 거칠게 캔버스를 채운 〈북한산〉 연작, 〈물〉 연작 총18점을 내놓았다. 18년 전 작가는 〈인왕산〉 연작으로 겸재 정선의 주체적 산수에 존경을 보낸 바 있다(작가는 간송미술관에서 10여 년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이론과 실기를 함께 닦은 이력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겹겹의 터치로 표현한 '산과 물 그리고 인간' 은 그 같은 새로운 자각과 정체성의 원류를 찾는 작가의 분투로 읽힌다.

I. 〈북한산〉 연작

산을 그린 그림에는 폭포나 계곡물이 보이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산수화에 비해 산을 더 클로즈업한 그림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을 그린 그림은 모두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물을 의식해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 투박한 질감이나 색감 그리고 생략된 형태감으로 표현한 강경구의 그림은 얼핏 서양화처럼 보인다. 이러한 표면적인 특징 이외에 강경구의 산과 물 그리고 사람은 단순한 표현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산과 물 또한 세상과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산과 물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에 대한 또 하나의 제유법적인 표현이며, 전통 동양화의 본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이다.

이번 전시에 내놓은 북한산 그림이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겹칠을 하게 된 것은 18년 전 그 투쟁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이런 저런 주제로 옮겨 다녀도 산은 다시 인연의 끈을 잡고 다가왔고, 되돌아온 산은 더욱 격렬한 '대결의 장' 이 되었다. 아크릴 물감이 눌리고 짓이겨진 끝에 뭉쳐 도는 모습은 마치 먹이 살아 움직이는 듯 하며, 그것들이 울림의 파장을 낳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자못 비장감마저 불러일으킨다.

II. 〈물〉 연작

물과 사람이 어우러진 물 그림은 지난 2004년 개인전의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림들이다. 당시 그는 창문을 열고 물을 바라보는 사람, 물속을 걸어가는 사람,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등을 그렸다. 강경구는 물길을 따라 끝없이 흐르는 그물에서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물과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만난 그들은 무언극 같은 몸짓으로 인생이 일종의 항해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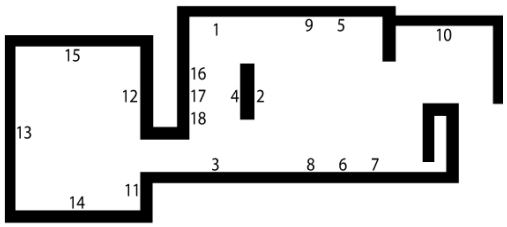
이번 〈물〉 연작에서도 그 특징을 여전히 만나볼 수 있다. 물 위에서 갖가지 동작을 취하는 사람을 크게 클로즈업한 그림은 지난 전시의 물 그림보다 사람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았다. 거친 아크릴 컬러의 터치를 따라 다양한 색채로 일렁이는 물은 세상의 많은 진리를 품고 있는 듯하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사람과 물을 덮고 있는 터치다. 짧은 터치가 무수히 반복되면서 일종의 얼룩 같은 표정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의 몸은 녹이 슨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고 물은 스스로에게 미끄러져 영원한 유동성을 갖게 된다. 삼라만상의 밀고 당기는 힘, 모이고 흩어지는 힘, 어우러지고 반발하는 힘이 이 터치들에서 생생히 살아난다.

작가 강경구는 1987년 첫 개인전 이래 개인전11회 및 많은 초대전과 단체전을 열어오며 한국화를 통해 도시의 감수성과 미의식, 삶의 공간을 포착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또한 그는 한국화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특히 민감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지적인 작업으로 한국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는 산과 물(즉 '산수')을 통해 한국화의 전통을 해석하는 현대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기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 경 구

본관

Main



1. **파도타기**, 116.8×80.3㎝, 캔버스에 아크릴, 2008
2. **구름바다**, 91×116.8㎝, 캔버스에 아크릴, 2008
3. **바람소리**, 112.1×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4. **저 바다에 누워**, 80.3×116.8㎝, 캔버스에 아크릴, 2008
5. **물거품**, 112.1×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6. **썰물**, 112.1×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7. **허튼 날개짓**, 112.1×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8. **먼 그림자**, 112.1×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9. **북서풍**, 112.1×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0. **낯선 여름**, 259.1×193.9㎝,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1. **신기루**, 162.2×130.3㎝,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2. **나한**, 130.3×162.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3. **천 개의 바람**, 193.9×518.2㎝, 2008
14. **12월**, 259.1×193.9㎝,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5. **관세음**, 259.1×193.9㎝,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6. **가르다**, 90.9.1×65.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7. **흐름 속에서**, 90.9.1×65.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18. **한낮**, 90.9.1×65.2㎝, 캔버스에 아크릴, 2008

NEXT EXHIBITION
Yin Qi 尹齋
6. Aug ~ 31. Aug. 2008

學古齋
Hakgojae Gallery
Main
100-200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70
70 Sokyukdong, Jongr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